



Y P F

평양과학기술대학

첫 해외유학생 배출:

- 평양과기대는 국제사회와 북한을 이어주는 교량역할을 하고 있다.

연변과학기술대학

20주년을 지나며:

- 연변/평양과기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은 특별하고 분명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할 것.

YUST 20주년

1

PUST 첫 해외유학생 배출

1

비전선언문

2

YUST 상경관 준공

2

PUST의 역할

3

PUST 치과사역

3

Education as Mission

4



연변과기대 20주년을 지나며 ...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들의 시선은 참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의 차이만큼 다른 것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맞다”는 것입니다.

연변/평양과학기술대학을 바라보는

연변/평양과학기술대학을 향한 하나님의 눈은 특별하고 분명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항상 우리를 친히 이끌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자리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시선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연변과학기술대학의 새로운 희망의 땅과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소망의 땅을 향한 비전의 향해를 동역자님과 함께 열어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삶을 기원합니다.

곽선희 (동북이문화 협력재단 이사장)

평양과학기술대학 첫 해외유학생 배출

평양과학기술대학은 현대화, 세계화를 통해 민족번영에 기여하는 대학, 나아가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길러내는 국제대학으로 부상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유능한 지도자급 인재양성, 국제사회와의 유대강화, 국제간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국제리더십을 갖춘 미래지도자를 배양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학생들을 가능한 세계 여러 대학에서 유학시키는 것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 3명의 학생은 영국으로, 또 다른 4명의 학생은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들이 유학하는 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들을 배우게 되고



국제 학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하게 됨으로써 평양과기대의 국제화는 물론 북한의 국제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평양과학기술대학은 북한학생들과 교수들에게 국제사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북한사회 발전을 위한 특별한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11년 10월 4-8일에 열린 “제1회 세계평화를 위한 과학

기술협력 국제학술대회”이다. 정보통신, 농-생명, 경영 그리고 환경 및 과학, 외교 등에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이태리, 중국 등 6개국 30여명의 세계적인 학술 전문가들이 논문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변화와 발전을 가늠하는 가능성과 비전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변과기대 상경학부 신생활상경관 준공식 거행

지난 12월 12일 연변과기대 신생활 상경관의 준공식이 김진경 총장을 비롯한 중방측 영도 및 각 학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신생활 상경관은 연변과기대 상경학부 졸업생인 안봉락 회장과 상경학부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최고경영자 과정, 상무학원,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건립 기금조성에 동참하였다. 본 건물은 지상 6층(연면적 6,543㎡)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최신식 건물로 국제회의실, 전자 열람실, 강의실, 교수 연구실, 다목적실 등으로 이루어

져있다. 지난해 4월 19일 상경관 부지에서 착공식을 한 지 8개월 만에 준공하였고, 국제경제와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 갈 경제인력 양성의 요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과제는

건축비 미지급금 약 100만불을 해결하는 것이다. 매달 약 4만불씩 24개월 동안 상환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를 위해 동역자들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뒷면의 후원신청을 통해 후원할 수 있다.



“정직과 성실, 나눔과 공유, 책임감과 리더십, 진리수호와 배려”



사랑주의 - 우리의 비전 선언문

연변과학기술대학 설립 20주년을 지나 새 시대로 향하는 우리는 전 세계를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세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랑주의자”가 될 수 있는 6가지 가치를 몸소 구현할 수 있는 시민입니다. 연변과기대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적인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6가지 자질들은 첫째, 사람들의 차이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인간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재능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셋째, 의견의 일치를 위해 사람들과 화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넷째, 통일과 조화를 위해 사람들 사이에 화해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관용을

보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섯째, 멘토와 리더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직과 성실을 기초로 하는 도덕적인 강인함과 끈기.
2. 자기희생과 사랑에 기인한 나눔과 공유.
3. 다음 세대의 책임감 있는 글로벌시티즌을 양성하는 학업 정신과 리더십.
4.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창조 되었다는 진리를 수용하며 타인에게 배려를 보일 수 있는 가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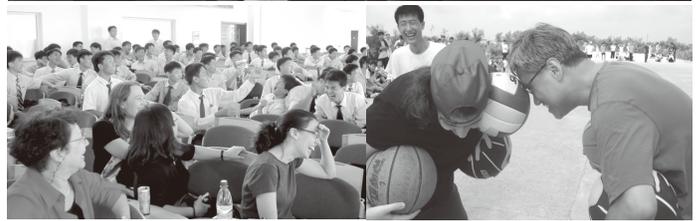
평양과기대 여름학기를 통한 세계화 교육

평양과기대가 2010년 10월 25일 수업을 시작한 이래 매년 여름학기를 포함하여 7학기째 학사 및 대학운영을 추진해왔다. 매년 신입생이 입학하여 지난 가을학기에는 학부 300명, 대학원 78명, 총 378명의 학생이 70여 명의 교직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글로벌사회로 진출하기 위해 국제경제 및 국제사회문화체육 등, 북한사회의 국제화를 준비해오고 있다.

2011년 여름학기를 시작으로 매년 7월 4주간의 여름학기를

통하여 세계 유수한 대학, 연구소, 기업 등 각분야 전문인을 초청하여 국제언어교육과 선진교육을 통한 세계경제의 흐름을 익히고, 국가간의 경제연합을 준비해가는 특성화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여름학기에는 매년 7개국 30여명으로 구성된 초청 전문인 교수진이 평양과기대를 방문하여 전문분야를 강의하고, 또 학생들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다양한 문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역할 (David C. Hilmers 교수 기고문)

평양과기대는 작지만 북한을 국제사회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아직도 널리 존중받고 있지만 북한 지도자들이 고립보다는 협력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평양과기대는 미래의 지도자들을 서구의 교육과 문화에 노출시킴으로서 이러한 진전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나는 이런 계획이 미

국과 상반되는 이해와 철학을 가진 국가들에 대한 외교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평양과기대의 운영에는 많은 후원자와 무보수로 봉사하는 교수들의 지속적인 희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들의 노력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나는 개인과 NGO 그룹 및 정부에 종종 성공하지 못하는 무조건적인 대결정책의 대안으로 이와 유사

한 계획을 지원할 것을 주장한다. 나는 조그마한 구멍으로 북한을 바라보았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평양과기대의 존재는 이미 세상을 안전하게 만들었으며 나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충분히 알려주었다.

**** David C. Hilmers** Baylor 의과대학 교수(61세)는 최근 북한의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주관한 과학관련 학술회의에 다녀온 후, 자신의 심경과 주장을 담은 기고문을 Houston Chronicle 지에 게재했다.

“평양 과기대의 존재는 이미 세상을 안전하게 만들었으며 나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충분히 알려주었다.”

- David C. Hilmers -

평양과기대 치과병원

이 병무 박사로부터 시작된 평양과기대 치과병원은 매년 그 열기를 더해 2013년 을 해는 더욱 활기를 띠 전망이다. 평양과기대의 보건전문대학 준비의 일환으로 시작하는 이번 활동은 LA와 인근의 뜻을 같이 하는 한인 치과의사들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를 약 2주씩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

료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370여명의 평양과기대 학생들과 70여 명의 북한측 교직원, 그리고 일부 북한 치과의사들에게 진료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협력할 의사들과 필요들을 함께할 동역자들의 손길을 기다린다. 후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뒷면의 후원란을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다. 후원하실 분들은 신청서와 보내실 수표의 메모란에 “치과사역”이라 적어 보내면 된다.



Education as Mission

사 람을 남기는 장사를 최고의 가치라 여겼던 개성상인들의 상도는 이 시대의 기독교 정신에 주는 교훈이 큼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목회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나, 기업을 경영하는 CEO들에게나, 또 소그룹을 인도하는 인도자에게도 사람을 남기는 것은 중요한 자산입니다. 어떤 사람을 심고 키우느냐 하는 것에 성경적인 가치와 신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품으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하셨던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을 땅에 심정으로 한 사람, 또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을 심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됩니다.

오늘날의 사역에 있어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현장이 선교로서의 교육현장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보통 4년, 길게는 6-7년 동안 집중되어지는 연변/평양과기대의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는 데에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 연변과기대 학생들 이나, 좋은 배경을 갖고 있는 평양과기대 학생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Good Seed Scholarship**은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마음을 열고 무릎 꿇게 하는 Good Seed가 됩니다.



김 다솔 후원자는 상경관 건립비로 1 백만원을 후원해 왔다. 열두살 되던 해에 과기대 교직원인 부모와 함께 연변으로 이주하여 12년을 중국에서 보냈다. MK로 자라 사회인이 되어 한국에서 지내고 있지만, 연변과기대는 생각하는 것 만으로도 힘이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마음의 고향이라 한다. '과기대 울타리 안에서 많은 분들의 사랑과 격려를 받으며 성장하여 이제는 받은 사랑을 나누고자 후원을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연변과기대를 통해 배움과 나눔의 손길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100 은 한 가족이 좋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가치가 있지만, 선교지의 학교에서 매월 \$100의 헌금은 연변과기대 학생들에게는 한 학기 등록금의 절반이, 평양과기대 학생들에게는 한 학기의 생활비가 됩니다. 한 달에 두, 세 번 있는 가족외식을 조금 저렴한 식당에서 한다면 1구좌 \$100의 헌금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심어 사람을 남기는 **Good Seed Scholarship**이 됩니다. 이 사역에 믿음으로 동참할 당신을 동역자로 초대합니다. 연변/평양과기대 학생들을 위한 **Good Seed Scholarship**에 동역자가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래 양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Other"란과 "수표"에 "**Good Seed 장학금**"이라 쓰시면 됩니다.

< 알림 >

- *연변/평양과기대의 봄/여름학기의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월 4일 개강, 6월 28일 종강
 - 7월 1일 - 26일: 여름학기
- *매월 \$40,000씩 24개월 동안 지불해야 하는 연변과학기술대학 상경관 건축비 미지급금을 위한 후원자들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 *평양과기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열전지렌턴보급운동**을 위해서도 후원자들의 관심과 손길을 기다립니다.
- *본지 후원을 위한 광고를 받습니다. 관심 있는 후원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후원하는 방법

YPF에 후원을 하면 tax-deductible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Online donation with credit card: www.yustpust.org 에서 "Donate"를 클릭하신 후 안내대로 하시면 됩니다.
- 수표(check)로 보내시려면, Check payable to : **YPF** Address: P.O. Box 336 Winnetka, Illinois 60093
수취인란에 "YPF"를 써주시고, 수표의 메모란에는 후원하고자 하는 곳의 **특정한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주소

YUST PUST Foundation
P.O. Box 336 Winnetka,
Illinois 60093

Chicago: 312) 805 - 8646
L.A: 626) 394 - 8782

Email: yustpust@gmail.com
www.facebook/YustPust
Foundation

후원자 정보: 아래에 성함과 연락처를 꼭 적어주십시오.

이름: _____
주소: _____
시/주/zip: _____
전화: _____
Email: _____

아래 (✓) 한 곳에 후원하고자 합니다.

- YUST (연변과기대)
- PUST (평양과기대)
- NK Children (북한어린이)
- Other: _____

금액: _____